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6일 금요일 (음 5월 23일)

제20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깊어가는 여름 짙어지는 내장산 녹음”

하청음(夏靑陰)! 울창한 수목의 쾌청한 녹색과 투명구슬처럼 맑은 물, 폭포와 계곡이 멋들어지게 여름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일컫는 별칭이다.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이름 높은 국립공원 내장산이 최근 또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한껏 짙어지고 있는 녹음이 일상에 서걱거리는 마음을 달래준다. 특히 짙푸른 수목에 둘러싸인 전통한옥의 우화정(우화정)과 신선재(神仙臺)의 하얀 물보라가 어우러진 정경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자연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싱그러운 나무그늘 아래 서면 몸과 마음에 누적된 피로가 어느새 저 만큼 달아난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마음 맞는 이들과 내장산을 찾아 쾌청한 녹색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때다. 여름 내장산으로 가자! /정음=김대환 기자



전주형 문화경제 실현

김승수 시장, 민선7기 청사진 내놓아
뮤지엄벨리·문화심장터 등 두 축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이 덕진권역 전주종합경기장 중심의 뮤지엄벨리 조성, 완산권역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두 축으로 전주형 문화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민선7기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구도심 중심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하고 효천지구·혁신도시·만성지구·예곡시대로 이어지는 신도시 일대를 주거벨트로 연결, 완산구와 덕진구를 균형발전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김 시장은 5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민선7기 시장 운영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새로운 성장으로 가슴 뛰는 미래(경제) △삶이 되고 밥이 되는 찬란한 문화(문화)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도시) △멀리보고 함께 가는 따뜻한 전주(공동체)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복지)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전주종합경기장과 법원·검찰청부지,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주생태동물원, 팔복예술공장을

포함하는 '덕진권역 뮤지엄벨리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열섬 해소를 위한 천만그루 더불어 숲 프로젝트' 등 2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슴 뛰는 미래(경제 분야)의 경우, 김 시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거래사를 포함한 금융관련 기업유치와 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으로 전주를 대한민국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2022년 완공예정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강소기업 100개사를 유치, 실용성 위주의 탄소소재 제품개발과 육성과 또한, 2025 전주세계 드론축구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과 드론을 활용한 ICT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 드론 메카시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김 시장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신생 벤처기업 지원을 책임질 중소기업연수원을 유치하고 영세기업 입주예를 위한 도심 속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 지원과 비경제활동인구

의 심리치유를 돕는 청년취업 10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한, 김 시장은 덕진권역 문화분야 발전을 위해 전주종합경기장과 법원·검찰청 부지를 활용, △극립미술관 유치 △전시컨벤션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완산권역에는 지난 민선6기부터 추진해온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하여 문화가 관광으로, 또 관광이 경제와 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두 축으로 삼는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문화경제 수공예산업 등 문화제조업 활성화,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일자리 확대, 마이스(MICE)산업 기반 구축 등 전주형 문화경제 실현을 위해 힘쓰고 스포츠 메카도시 조성, 한옥마을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한옥마을 하부 더 프로젝트'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도시 분야)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제정 등 맑은 공기 국가 선도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시민들과 함께 1000만 그루의

나무를 함께 심고 가꾸는 '숨 쉬는 도시' 천만그루 더불어 숲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구도심 마을재생 프로젝트와 효천지구·혁신도시·만성지구·예곡시대로 이어지는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고품격 주거벨트 조성, 전주역사 조기 신축 및 치마중길 권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추진한다. 김 시장은 멀리 보고 함께 가는 전주(공동체 분야)를 만들기 위해 △생태형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 추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일자리 1,000개 육성 등도 추진한다. 끝으로, 김 시장은 아동 공보육 확대 및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 등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복지 분야) 정책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발표된 민선7기 시장 운영방향과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김승수 시장의 공약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북투어패스 올 상반기 8만장 판매 기록 달성

한국관광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지난해 2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가 올 상반기 8만장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한국관광의 별'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8 한국관광혁신대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라북도 토틀관광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전북투어패스는 2017년 12월 자유이용시설 65개소, 오프라인 판매소 50개소, 14개 시군의 공용 유료주차장 및 시·군내 버스를 연계하는 한편, '가자고' 등 온라인 커머스 9개소와 전용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어패스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관광산업의 기반을 다졌다. 2018년에는 전북투어패스의 질적 인 성장과 이용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군과 민간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자유이용시설 16개소, 양질의 특별할인가맹점 91개소를 추가 발굴, 확대 했다. 자유이용시설에는 고창선운사, 부안내소사, 정읍내장사 사찰 3개소, 무주 태권도원,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 진안 명인명품관 등 여행객이 선호하는 여행지를 추가, 외국인전용관광버스, 전북도 순환관광버스, 익산 시티투어, 정읍 시티투어 등이다. 특별할인가맹점에는 한복·교복 등 체험업소, 정읍 국민여가캠핑장 등 숙박업소, 도지사인증상품, 100선 관광상품, 진안 홍삼 등 양질의 전북특산품을 추가 가맹했다. 또한,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시설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인기있는 특별할인가맹점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전라북도의회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새로운 시작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제11대 전라북도의회를 열어가겠습니다!